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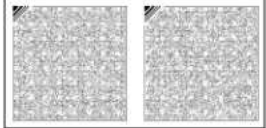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 새 보 란

Saeboram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

2016년 8 · 9월 278호

(02) 796-4280 www.kapppd.or.kr

## 3 뉴스

### 중증장애인 고용증대 "어떻게 해야 할까?"



## 12 시선8616

### 장애인단체의 성장과정과 방향성에 대하여



## 16 국제

### 뇌 ·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척수 손상 일부 감각 회복



## 17 편의증진

### 관광숙박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 지장협,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 마무리

## 230개 시 · 군 · 구 장애인인권위원회 역량강화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지난 7월 11일 시작한 '2016년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을 마무리했다.

전국 230개 시 · 군 · 구 장애인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4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지난 7월 11~12일 경기도 양평에서 제1권역 수도권 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제2권역 충청권은 18~19일 충남 예산에서 진행했다. 이어서 8월 22~23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제3권역 호남 · 제주권 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25~26일에는 경북 경주



▲제3차 호남 · 제주권 인권교육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서 제4권역 영남권을 끝으로 2016년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총 3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먼저 '인권감수성을 깨우자'를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의 현안 및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법', '사례를 통한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강의 및 분임토의를 실시했다. 인권위원들은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사례를 적용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장협은 전국 230개 시 · 군 · 구 장애인인권위원회에 지역사회의 내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또 다양한 사례에 관해 논의하면 서 실질적인 인권문제의 해결능

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인권교육 내 특강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지장협은 지난 30년 동안 전국 17개 시 · 도와 230개 시 · 군 · 구 지역에서 한국 장애인복지 발전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인드와 하나된 응집력으로 장애인당사자 단체로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단체 출범이 장애인 인권 수호에서 출발한 만큼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장협은 지난해 1월 중앙장애인인권위원회를 결성하고 중앙장애인인권위원장과 각 시 · 도, 시 · 군 · 구 장애인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을 임명해 본격적인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을 시작했다. 또 지난해부터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매년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을 통해 전국 230개 시 · 군 · 구 장애인 인권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 '상곡인권상' 수상 후보자 모집

### 장애인 인권증진 위해 헌신한 공로자 대상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곡인

권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상곡인권상은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故) 상곡 장기철 지장협 초대회장의 이

상과 신념을 오늘에 전하며, 장애인 인권운동의 기반마련과 사회변혁을 위해 매진해 온 장애인 인권분야 공로자의 공훈을 알리기 위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상이 추진된다.

후보자는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적이 구체적 ·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

된 자이어야 한다.

-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분야와 소통하고 장애인 인권문제의 사회화와 정치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격한 공로를 수립한 자

- 장애인 인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철학을 기반으로 인권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실

적이 있는 자

- 장애인 차별에 저항하고 잘못된 사회의 관행을 혁신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의 모범이 된 자

자세한 내용은 지장협 홈페이지(www.kappp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제출기한은 9월 23일(금)까지이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6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

# 장애인 권리 실천 10가지 중점목표 '중간점검'

## 14개국 대표자, 인천전략 이행 위한 현황 공유



▲2016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국장이 '편의 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제도'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점검을 앞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장애인 권리실천 이행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2016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 전략 실행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는 14개국 장애인당사자단체의 대표 및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인천전략은 2013~2022년의 10년간 아태 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10가지 중점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

첫날은 '모든 이를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인 'SDGs: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지체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양수길 대표가 강연했다. 양 대표는 "SDGs란 UN이 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채택한 지

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서 기존 목표보다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개발을 목표로 두었다"면서 "이 목표 하에 장애포괄적 목표와 관점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라는 주제 하에 각국 여성장애인의 교육현황과 정책을 돌아보고, 장애여성의 양육과 사회활동을 살펴보는 등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서울복지재단의 특별세션으로 시작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과정을 통해 본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및 복지지원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조명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국장이 '편의 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제도'에 대해 강연했다. 홍 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착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선진적으로 도입하는 이 제도의 목적과 업무, 절차와 기대 효과 등을 소개했다.

셋째 날에는 내년으로 다가온 인천전략의 중간점검을 앞두고 사전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제문화예술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국내 장애인 문화 예술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 후 중국과 몽골의 장애인 문화예술가를 초청해 각국의 현황과 사례를 청취했다.

## 광주지장협, 일본 장애인단체와 교류 장애인복지 현황 공유와 공동 협력 다짐



▲광주지장협과 일본센다이시 장애인단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최남규, 이하 광주지장협)는 지난 8월 5~8일 광주광역시 자매도시인 일본 센다이시 장애인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교류 사업을 주관한 광주지장협은 이를 위해 사전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개 단체에서 장애유형별, 직능별로 추천받은 인물 중 25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교류 사업 일정은 일본 센다이

시 에미코 시장의 초청으로 센다이 시청을 견학하며 시작했다. 이어서 센다이시 와카바야시 장애인 복지센터를 시찰한 후 센다이시장 해자복지협회와 한일 합동 장애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역의 장애인단체는 서로 장애인복지 현황을 살펴본 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교류단은 또 센다이 지진 피해 상황을 청취한 후 양 지역의 교류를 기념하여 무궁화나뭇꽃을 심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칠석축제에 참석하며 일본 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교류사업을 주관한 광주지장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센다이시장해자복지협회와 국제교류를 통해 협력하고, 상호 벤치마킹해 양 지역의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다이시장해자복지협회 아베 가즈히코 회장은 오는 10월 답방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입상작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이하 장고협)는 '2016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작품 현상 공모전(이하 콘테스트)'을 실시한 결과 총 6개 부문에서 68점을 선정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미술 부문, 글짓기, 운문, 산문, 사진, 컴퓨터그래픽, 광고영상/스

운식의 '열중'이 금상작으로 선정됐다.

컴퓨터그래픽 부문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빠의 출근길을 표현한 김영수의 '우리 아빠의 출근'이 금상을 수상했고, 미술 부문에서는 여정후의 '내 꿈을 펼쳐라'가, 광고영상/스토리보드 부문에서는 서정화, 김수민, 이혜빈이 공동 출품한 '누

### 금상 '나무의 나이트' 등 68점 선정

### 9월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상

토리보드 부문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총 469명, 1029편(점)이 접수됐고, 부문별로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해 1차 개별심사, 2차 합동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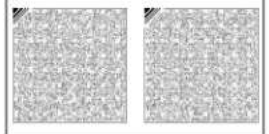
운문 부문에서는 나무를 의인화해 표현한 이병언의 '나무의 나이트'가 금상을 수상했고, 산문 부문에서는 김미정의 '남편 목록 서비스'가, 사진 부문에서는 신

구의 빈자리입니다?'가 각각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9월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각 부문 금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고협 홈페이지(www.kesad.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 02-754-7755(콘테스트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 “어떻게 해야 할까?”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 고용유지 노력해야 한다” 지적

##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

2016. 8. 29 14:00~16:00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 주최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추진 연대 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필요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중고연)는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를 8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중고연이 지난 6월 8일 진행한 제1차 토론회는 중증장애인 고용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했다면, 이번 2차 토론회는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진 교수(광주여대 재활학과)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569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 장애인 1만 6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중 중증장애인은 94.2%를 차지한다.

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의 양적 성장에 비해 여전히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설들이 ‘생산 · 고용 · 훈련 · 전이’라는 법적 목적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현행 법률의 정의가 현실에 부합한지를 고민해 시설의 목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유형을 현장 중심으로 탄력적 개편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론과 선진국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직업재활 현장에 맞도록 재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말단까지 잘 조직된 탑다운(top down) 형태로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식(bottom-up) 방식으로 시설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다만 직업재활시설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최저 서비스 기준을 설정해 최소한의 규정과 지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사업성 측면과 보호고용 측면의 이분법적 규정이 아닌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 단순 고용 넘어 고용 유지 노력해야

김 교수는 이어서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큼 고용 유지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 지적장애인의 근로기간은 전체 장애인 평균인 112개월보다 월등히 낮은 38개월 정도다. 이들은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의 조정을 원하고 있어 직무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교수는 “취업 결과 중심의 성과 우선주의와 예산부족으로 직무지원인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이 대

체로 공감하며, 추가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장애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는 10%의 고용률을 보였고, 정신장애는 11.9%, 호흡기장애 14.1%, 자폐성장애 14.5%, 뇌전증장애 16.3%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별 고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상진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보조공학 지원,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 인턴제 도입 등이 실질적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박승유 이사는 직업재활 지원 사업이 고용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용률보다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및 지원, 적응훈련 등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고용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구여성장애인연대 권순기 대표는 “중증장애인 못지않게 여성장애인의 고용률도 심각하게 낮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의 여성장애인 근로자 현황도 분석해 여성장애인의 고용증대와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고연 측은 오는 11월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률과 제도 개정을 골자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발달장애 거점병원 2곳 지정

한양대 · 양산부산대, 인력 · 시설 확충 후 10월부터 운영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이 발달장애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와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2곳을 거점병원으로 선정했다.

거점병원에는 진료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발달장애인의 예약부터 진료 전 과정을 안내 및 지원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발달장애

관련 진료부서간 협진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서는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던 중증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독립된 행동치료실을 갖춘 행동발달증진센터

도 병원 내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보니 행동문제 등의 전문적 치료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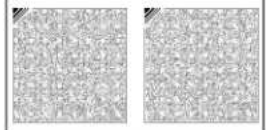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달장애인의 의료지원과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해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참여기관을 공모한 결과 이번 2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시설공사와 인력확충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향후 임상 및 연구결과 등을 활용해 시·도 단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행동문제의 원인과 대처방법을 부모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 사회통합의 열쇠, 장애인지예산

## 윤소하 의원, 장애인지예산 개정안 발의 예고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 장애인지예산으로 사회통합 추구

장애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과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김동기, 2008).

지난 2008년 국내에 장애인지예산제도가 소개된 후 학계와 장애인단체,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2011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도 도입

의지에 대해 질의했고, 김 총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서울시는 2014년 '서울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몇몇 연구기관 및 장애인 단체에서도 후속연구를 진행했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8월 24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지예산제도에 대

한 공감대가 공감 수준에만 머무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이 진전되기 위해선 법률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률 정비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장애인지예산 실행을 강제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제도적 및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는 열악한 교육 및 소득 수준, 차별 등으로 인해 비장애

인과 비교할 때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출발선에서 장애인이 뒤처진 정도를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그 지원의 핵심은 바로 국가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설명하며 '성인지예산'을 예로 들었다.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을 가진 예산제도인 것처럼, 장애인지예산 또한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장애인지예산 개정안 발의 예고

다음 발제자로 나선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지예산제도 관련 법안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지예산은 예산의 대폭 확대가 아니라 형평성 있는 재분배를 의미한다"며 "장애인지예산 원칙을 적용해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서 장애인의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은 장애인 예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장애인지예산 관련 법안 개정안, 지방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 일부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의 경우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재정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장애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장애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개발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회계법은 지방재정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해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도록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틱장애 장애인 등록 거부는 위법, 판결

### "장애 경중 관계없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틱장애 대상자를 장애인 등록에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행정기관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장애(뚜렛증후군)를 등록대상 장애인으로 넣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8월 21일 밝혔다.

틱장애는 얼굴이나 어깨 등 근육이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증상을 억제하지 못하는 장애다.

틱장애가 있는 이 모 씨(24)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

소했으나 이번 재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초등학교 때 '음성 틱' 증상을 보인 이후 증상이 심해져 얼굴이나 목 등이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 증상을 추가하며 병원에서 틱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7월 해당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틱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없으며 받아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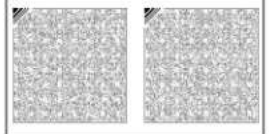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필요 등을 감안해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틱장애를 시행령에 넣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정도의 경중 관계없이 시행령에 등록대상 장애인으로 넣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 “장애인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어떻게 할까?”

##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영역별 과제 제안 등 의견 수렴



▲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전경.

### 장애인 권익옹호시스템 구축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비전을 설계하는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2차 포럼이 8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미래포럼은 권리보장, 소득·고용, 서비스·자립, 건강의 4가지 영역별로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10년 이후 장애인정책의 종합적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장애인 권리보장 영역의 논의에 관해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4차에 걸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장애인복지가 점차 확대됐지만, 여전히 복지급여에 얽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연금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제 문제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미반영 등으로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는 장애인이 상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복지 증진과 함께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등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기에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권익옹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소득·고용 분과에서는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가 발표하며,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빈곤 감소와 생활안정 강화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평균 소득이 노인보다 더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의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현재의 6.8%에서 최소한 10%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 관련해서는 직업재활 서비스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합해 국가 차원의 평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사례관리 코드 시스템을 개발해 직업재활 서비스 경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패키지 형태의 자립 지원

서비스·자립 분과 연구를 발표한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미래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패키지 형태의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적용하면 장애인이 단일 창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욕구를 동시에 검토하고 서비스의 종류와 총량을 결정해 제공한다. 그 서비스 종류는 장애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수가 커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싶다면 정식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것을 자기주도 계획의 핵심으로 하고, 개인예산

을 받아 수강료·교통비·재료 구입비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 분과는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립 재활원 주관으로 6개의 권역재활병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나, 지역사회 서비스 간의 조정이나 정보 제공이 미흡해 장애인당사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종합판정도구를 활용한 건강관리 필요도를 평가해 보건소에서 생애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의 경우 비장애인 대비 검진수검률이 63%로 낮는데, 수검률 제고를 위해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해 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재활치료에서 체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간단계 서비스 개발과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수행,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강화, 편리한 장애인 건강보건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포럼이 개최하는 3차 포럼이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시공, “장애인 편의 보장 법제화 한다”

### 「건축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8월 22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의 건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이 공동주택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거실 및 화장실, 욕실 등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문의 폭이 좁아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주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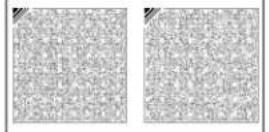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공동주택 이용자의 안전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건축 기준을 법제화했다. 특히 영국

의 건축법규에는 방 3개 이상 주택의 경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만 있을 뿐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건강권

##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되어야 한다”

## 인권에 기반을 둔 법제도 설계해야

장애인건강권보장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가 주관한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토론회(이하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건강법 토론회)가 지난 7월 27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패널 모두 당사자로 구성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법)을 바라보고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먼저 장애인당사자건강권보장위원회 임성욱 위원은 법률의 조항별 검토 결과 발표를 통해 건강법의 주요 내용과 보완점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건강법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의 근거가 확립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중심의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했다.



▲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토론회가 열렸다.

우주형 교수는 향후 과제로 △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보건과 신설, △장애유형 및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시스템 구축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의료 및 비영리 민간의료기관 확대 △정신보건센터 기능 확대 △병·의원 접근 및 편의 제공 의무사항 강화 △의료진 인식개선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우 교수는 건강권은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법제도 설계 시 의료 관련 재원을 포함해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를 보장

하고, 사전 동의와 자유에 기반을 둔 의료서비스 결정도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장애여성네트워크 백혜련 대표는 건강법에 접근하는 사회방식,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주치의 제도와 의료지원, 장애여성과 관련한 성인지 관점에 의한 생애주기별 접근보장을 강조했다. 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당사자의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센터 이상훈 센터장은 건강법

시행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 부족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가이드라인이 될 법률 기준이 부

족한 점을 우려했다.

이어서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상훈 소장은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현실적인 요구 및 정책 제안과 함께 패러다임의 역행을 막기 위한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운영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사무처장은 해외 모범사례를 통해 건강개념을 재해석하는 한편, 공공의료재활포럼에서 제안한 의료전문가 주도 모형을 지역사회 및 장애인민사회 주도모형으로 전환한 전달체제도 소개했다.

장총련 측은 “장애인건강권의 불평등 재생산과 사회적 기회의 악순환을 막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앞으로 장애인계의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교육과정

## “차별” 더 악화되었다

##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들이 교육과정에서 체감하는 차별 정도가 10년간 더 심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8월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05년과 2011년, 201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결혼과 취업 시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줄었지만 대부분 영역에서는 10년간 차별 정도에 변화가 없거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특히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입학이나 전 학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오히려 증가했다. 유치원 입학·전학 시 차별 경험률은 2005년 23%에서 2014년 27.1%로 늘었

다. 초등학교(33.8%→38.8%), 중학교(27%→31.6%), 고등학교(21.5%→25.1%), 대학교(11.2%→12.5%)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차별 정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심했고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였다.

2014년 기준으로 학교에서의 차별 행위자는 또래 학생이 47.1%로 가장 많았고 교사 18.7%, 학부모는 13.7%였다. 2005년과 비교하면 각각 0.9%포인트, 1.2%포인트,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복천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학교 교육 기간에 차별을 자주 경험하므로 학교생활 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퀴달린 성악가의 희망다리 콘서트

## 9월 10일 여수, 10월 15일 목포 공연

바퀴달린 성악가로 알려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이남현 교수가 장애인·비장애인 전문 아티스트들과 함께 ‘희망다리 콘서트’를 여수와 목포에서 개최한다. 이 교수는 사고로 목 신경이 끊어져 전신마비가 되었으나 꾸준히 노력해 최초 무신경 성악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콘서트를 총괄 기획한 이 교수와 함께 SBS스타킹 멘토 성악가 권순동 교수, SBS스타킹 중학생 폴포츠 테너 양승우, 성악가 테너 이명진, 가수 겸 뮤지컬배우

니모, HB 앙상블이 화합의 하모니를 펼칠 예정이다.

이남현 교수는 콘서트를 준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하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희망다리 콘서트는 오는 9월 10일(토) 오후 5시에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과 10월 15일(토)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극장에서 각각 개최된다.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참석희망자는 전화(010-4667-1519)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다리 콘서트 포스터.



# “장애인 주차방해 하지 마세요”

## 제주지장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예방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중, 이하 제주지장협)는 지난 7월 27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제주지장협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제주지장협은 7월 말까지 관내 공공기관, 다중 집합시설,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40여 곳에

주차방해 행위 유형과 이를 어길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표지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판 밑에 추가로 설치했다.

## 문경 홈플러스, 여성장애인 지원

문경시지회, 영화 관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여성장애인들이 홈플러스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듣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흥진, 이하 문경시지회)는 8월 19일 지역 홈플러스에서 20여 명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영화 관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문화센터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했다. 이어서 바로 옆 영화관에서 ‘덕혜옹주’를 관람했다.

이번 교육은 홈플러스 측에서 문화센터 강의실을 특별히 대관해주면서 이루어졌

다. 문화센터 강의실은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가 연중 열리는 장소라 외부 대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사회 자원 활용 차원에서 문경시지회에 대관을 협조했다. 앞으로도 문화강좌와 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박흥진 지회장은 “무료로 특별대관을 해준 홈플러스에 감사하다”며 “여성장애인이 문화 활동을 향유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죽정 장재곤 협회장 송덕비 제막식

장애인 복지 향상 위해 헌신

“후대에 귀감이 될 것”



▲죽정 장재곤 협회장 송덕비 제막식.

지난 8월 15일 전남 영광군 군납면 백양리에서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전남지장협) 장

재곤 협회장의 송덕비 제막식이 열렸다.

장재곤 협회장은 1998년 지방

자치선거에서 제3대 영광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02년에는 제4대 영광군의회의원으로 재선하고, 군의회 부의장으로 재임했다. 또 영광군 평통자문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발전과 화합에 앞장서 왔다.

현재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전남지부장, 전라남도장애인인권위원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전남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제막식에는 김준성 영광군수와 군 관계자, 전남지장협 21개 시·군지회장, 장성군장애인복지관 이대원 관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민들은 송덕비 건립이 후대에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통영시지회, 장애인 카누체험

죽림만에서 ‘새로운 경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적극 지원”



▲장애인들이 카누체험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통영시지회(지회장 한창석, 이하 통영시지회)는 지역 장애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카누체험을 실시했다.

8월 7일, 죽림만에 모인 장애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카누에 올랐고, 전문가의 설명에 따라 오른쪽, 왼쪽으로 노를 저으며 물길을

열었다. 이날 참가한 장애인들은 만족감을 표현하며, 생활체육 동아리나 전문 배움의 길을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창석 지회장은 “평소에 해보지 못한 체험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천·군산시지회 하계수련회 실시

임원 역량 강화, 지회 도약의 기회 마련



▲김천시지회와 군산시지회가 함께 진행한 하계수련회와 영호남 교류행사 기념촬영.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와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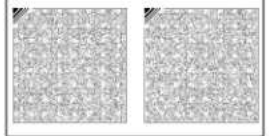
지회(지회장 전기수)는 8월 18일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임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하계수련회와

영호남 교류행사를 실시했다.

양 지회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하계수련회는 전남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하계수련회는 양쪽 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특정 업무, 새로운 과제, 운영방법 등 업무소개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양 지회는 지역 사회 특성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앞으로의 협력을 다짐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충남지장협, 환경보호 캠페인

## 쓰레기 수거 등 환경보호 활동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충남지장협 산하 시·군지회장 및 수탁시설장과 임직원들이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진휘, 이하 충남지장협)는 지난 8월 5일 충남 청양군 대치면 소재 칠갑산 일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환경정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했으며, 충남지장협 산하 시·군지회장 및 수탁시설장

과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손수 환경정화를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펼쳤다.

캠페인을 기획한 이진휘 충남협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환경정화를 위해 나선 임직원 여러분이 자랑스롭다”며 “환경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장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파주시지회, 소방안전교육

### 단계별 대처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



▲파주시 장애인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지회장 정희성)는 지난 7월 7일 파주소방서와 파주상공회의소의 후원으로 장애인 60명이 모인 가운데 제2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이번 교육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상식을 배양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했다. 교육은 화재발생을 단계별

로 살펴보고 대처요령을 전달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파주소방서에서 직접 장애인의 집을 방문해 화재센서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전달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화재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한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군위군지회,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관람

###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실시



▲군위군지회 여성장애인 활동가들이 예천세계곤충엑스포를 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지회장 김정기, 이하

9월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를 관람했다.

‘2016년 군위군지회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엑스포 관람은 여가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기획했다. 엑스포에 이어서 천연기념물 294호인 석송령과 경북도청도 함께 관람한 여성장애인들은 각자 관람 소감을 나누며 서로 정서적으로 교감했다.

이날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마련한 김정기 지회장은 “여성장애인들이 정서를 환기하고 심신을 단련할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 여성장애인 활동가 10명은 8월

## 화홍리더스, 수원시지회에 삼계탕 나눔

### 장애인 300여 명 식사와 레크리에이션

화홍리더스(회장 고창영)가 7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에 위치한 웨딩팰리스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지회장 최종현)에 삼계탕을 후원했다.

이날 삼계탕 나눔은 장애인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고, 화홍리더스 회원 30여 명이 자원봉사로 나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식사에 이어서 레크리에이션도 펼쳐져 즐거움을 더했다.

고창영 회장은 “삼계탕으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화홍리더스 회원들에게 행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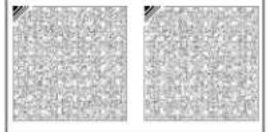
찾을 기회를 준 장애인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종현 지회장은 “삼계탕 한 그릇에는 영양가뿐 아니라 정성스런 연대의 마음이 느껴져 더 행복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뜨거운 여름이지만 활기차게 보내도록 하자”고 전했다.



▲화홍리더스가 수원시지회 장애인들에게 삼계탕을 후원했다.





# “교통약자 이동권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이동편의센터, 지하철 광고 통해 사회 인식개선 유도



▲지하철 내 부착된 이동편의센터 광고.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기호, 이하 이동편의센터)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1개월간 지하철 내 교통약자 이동권 광고를 시작했다. 지하철 광고는 유동인구와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많은 1호선, 4호선, 분당선 내부에 설치됐다. 이번 광고 내용은 여객시설과 보도 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는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서 이동편의센터의 업무를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 경기도 지하철편의시설 알림이와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해 건축물과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이동편의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현장조사 및 도

면검토, 기술지원, 민원상담을 통해 경기도 내 이동편의시설의 적합한 설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광고를 통해 교통약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개선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편의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 영천장북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실시 원활한 장애인 자원봉사 기회 마련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근, 이하 영천장북)은 지난 8월 5일 영천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실시했다.

이번 자원봉사학교는 단순한 봉사 시간 확보를 넘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봉사활동 분야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풍선아트교육, 장애체험(휠 지팡이, 휠체어체험), 16가지 성격유형을 알아보는 MBTI 검사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재능을 발굴하고 다음 자원봉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영천장북의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자원봉사란 단순히 청소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줄 알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의 다양한 영역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근 관장은 “지역 내 청소년들이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참된 봉사의 가치를 심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지장협, 부여장북 수탁 운영

“풍부한 경험으로 전문 서비스 제공할 것”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도기, 이하 부여장북)의 수탁법인으로 선정돼 8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장협은 7월 말 위탁신청서류를 제출했으며, 부여군청에서 실시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탁법인으로 선정됐다.

부여장북은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1999년 개관해 운영돼왔다.

지장협 관계자는 “전국 최대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안정적인 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의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부여군 장애인들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장성 지역 사회복지관계자 워크숍 열려

장성장북, 개관에 따른 우수사례 발표 공연 펼쳐

지난 7월 25일 전남 장성군에서는 장성 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문화와 함께하는 민관 사회복지관계자 워크숍’이 열렸다.

장성군 문예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성군청 및 장성지역 사회복지시설 54개소의 사회

복지 담당자들이 모였다.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표창을 전달하고,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5월 복지관을 개관한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대원, 이하 장성장북)은 개관에 따른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직원과 직업적응훈련생이 함께 준비한 춤과 노래 등의 공연을 펼쳐 박수를 받았다.

또 장성장북은 부대행사로 직업적응훈련생이 직접 만든 편백우드칩 큐브 방향제와 종이접기 교실에서 만든 작품 등을 전시해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7월 25일 문화와 함께하는 민관 사회복지관계자 워크숍이 열렸다.



# ‘500원의 희망선물’ 입주식

## 성남장북 장애인 생활환경개선 앞장



▲ ‘500원의 희망선물’ 선정 입주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성남시장장애인 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성남장북)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삼성화재가 공동 주최한 장애인 생활환경개선 프로젝트 ‘500원의 희망선물’ 입주식이 삼성화재 성남지역단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삼성화재가 사업비를 모금하고, 성남장북이 이모 씨(지체장애 1급)를 ‘500원의 희망선물’에 추천했으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사를 시행했다.

입주식에서는 공사 전후의 비교를 통해 개선사항을 보고하고 입주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또 공사가 마무리된 가정을 라운딩하며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프로젝트 237호 입주자로 선정된 이모 씨는 “리모델링 이전에는 문틈 사이로 벌레가 들어와 잠을 설치고, 휠체어를 이용하며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 시공 후 다시 오니 곳곳에 배려심이 느껴져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 아산장북 사진공모전 개최

### ‘과거-현재-미래를 만나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이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3주간 아산장북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아산장북 및 장애인복지 전반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기획했다. 장애인·복지·사진에 관심이 있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함께하고자 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은 과거-아산시장장애인

복지관의 옛 모습 또는 2000년 개관 이래 2015년까지의 복지관과 함께한 추억, 현재-장애인 및 가족의 행복한 모습, 미래-장애인복지의 긍정적인 미래(장애인식개선)의 의미가 담긴 사진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공모전에 응모하려면 아산장북 홈페이지(www.asanrehab.or.kr)에서 해당양식을 다운받은 후 이메일(woqls1201@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1인 3점까

지의 응모 가능하며, 작품규격은 파일크기 3MB 이상, 가로세로 1,500픽셀 이상, JPG 파일 원본이어야 한다. 스마트폰 촬영 작품도 출품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상장 및 상품을 수여하며, 출품 작품은 추후 관내 전시회를 개최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문의는 기획운영지원팀(041-545-7727)으로 하면 된다.

## 의정부장북 사랑의 영양식 나눔

### 개관 12주년 기념, 300여 명에 감사 인사



▲ 의정부장북이 사랑의 영양식을 나누고 있다.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춘희)은 7월 21일 개관 12주년을 맞아 사랑의 영양식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봉사자 등 300명이 참석했으며, 의정부시의원 및 경기도의원 등이 방문해 개관을 축하했다.

봉사자 및 직원들은 행사에 참여한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에 안부 인사를 나누며 여름 보양식으로 삼계탕과 과일을 배식했다. 거동이 불

편한 장애인에게는 삼계탕을 직접 발라주는 등 식사 수발을 정성스레 들었다. 또 복지관 카페에서는 시원한 음료와 후원 받은 화장품을 선물로 제공해 호응이 높았다.

이춘희 관장은 “복지관 개관 12주년이 되기까지는 이용고객과 지역주민 등 많은 분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어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더운 여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장애청소년 여름 극기캠프 실시

### 김천장북 도전정신 함양과 자립심 향상



▲ 장애청소년 여름 극기캠프 기념촬영.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장애청소년 9명은 8월 11~12일 양일간 전북 무주군 호룡불정보화마을로 극기캠프 및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일상을 벗어난 야외 활동을 통해 장애청소년에게 대인관계 개선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정신 함양과 자립심 향상을 위해 계획했다.

이번 캠프에서 장애청소년들은 2명씩 뗏목에 올라 서로 호흡을 맞춰 노를 저었다. 남대천을 따라 이동하며 협동심을 기르고, 반딧불이 불빛을 볼 수 있는 생태 체험관 및 반디별 천문 과학관을 견학했다. 특히 각 조별 팀장의 지도아래 식사와 정리정돈

을 스스로 해결하게 해 자립심을 배양했다.

박선하 관장은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다면 못할 일이 없

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장애청소년들이 끈기와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충남남부장복 장애학생 취업지원 MOU 체결

## 충남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공동 협력



▲충남남부장복이 충남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청남도남부장복장애인복지관(관장 서현미, 이하 남부장복)은 7월 28일 충청남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분야 전문가 발굴, 기업체 발굴과 협력, 현장 실습지원, 일자리 발굴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

다.

협약에 따라 남부장복은 맞춤형 일자리 및 사업체 개발을 위한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직업상담 및 평가, 현장실습, 적응지도 등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관 측은 장차 직업재활 활성화와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서현미 관장은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직업평가센터'와 연계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 괴산장복 개관 3주년 맞아 무료급식

## 괴산동진로타리클럽에서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



▲괴산장복이 개관 3주년을 맞아 무료급식을 진행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복)은 7월 20일 개관 3주년을 맞아 관내 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진행했다.

괴산장복은 지난 2013년 7월 25일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1,533㎡ 규모로 신축 개관했

다. 사무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식당, 강당, 직업훈련실, 프로그램실, 전산교육실, 보호자 대기실, 샤워실의 시설을 갖추고 농촌 지역 환경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괴산장복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미션을 갖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문화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무료급식은 무더운 여름 몸보신을 위해 삼계탕과 수박, 떡과 아이스크림을 마련했다. 특히 괴산동진로타리클럽(회장 진금순)에서 모든 식자재 후원과 자원봉사를 지원해 수월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효선 관장은 "지난 3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해주신 장애인분들과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사를 표하며, 지역의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진천장복 물놀이 프로젝트 성황

## 피서 어려운 장애인 위해 수영장 설치



▲진천장복이 피서가 어려운 지역장애인을 위해 에어수영장과 슬라이드를 설치해 운영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복)은 8월 11일 여름방학을 맞아 경제 어려움과 장애로 인해 피서를 가지 못하는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놀이 프로젝트 '여름아! 놀자'를 실시했다.

진천장복은 복지관 주차장에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0.8m의 에어수영장과 슬라이드를 설치해 장애인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개방했다.

물놀이 캠프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올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피서를 가지 못해 아쉬웠지만, 물놀이 행사를 통해 피서지에는 기분"이라고 즐거워했다.

한명수 관장은 "물놀이에서 지역 장애인들의 호응이 높았다"며 "앞으로도 복지관은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재가장애인과 복지관 이용자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달구벌복지관, 서준기 관장 취임

## 이용자와 지역주민 등 300여 명 참석해 축하

지난 7월 20일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제3대 강재형 관장 취임식과 제4대 서준기 관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구광역시지체장애

인협회와 김창환 협회장을 비롯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이재모 회장,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정병주 회장,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박주국 과장, 이영애 달

서구의회 부의장 등 50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이밖에 복지관 이용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달구벌복지관 서준기 관장 취임식 기념촬영.



# 장애인단체의 성장과정과 방향성에 대하여

국내 장애인복지발전사에서 장애인단체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정립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발전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결집 과정에서 이뤄져 온 수많은 자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연구와 정리는 미흡한 면이 많다. 본지는 열악한 국내 여건에서 어떻게 장애인단체들이 성장하고 사세를 확대해 왔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내용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 — 장애인단체의 성립과정

국내 장애인단체 성립과정의 특징은 장애인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결집이 그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장애인단체 형성의 기반이 되고 이에 대한 표출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근대의 단체에 대한 개념과 형태가 자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서구문화와 함께 시민단체 형태 역시 일본을 통해 전해졌다. 따라서 장애인단체 설립 초기에는 일본에 본회가 존재하고 조선지회 또는 지부 형태로 첫 모습이 등장했다. 1946년 한국농아인협회의 전신인 조선농아협회가 일제강점기에 가장 먼저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광복 이후 단체가 해체되거나 그 기반이 취약한 형태로 존재했다. 이후 장애인단체 창립은 1950년 전후반을 기점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전신인 한국맹인복지협회와 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전신인 한국불구자협회 등이 바로 이 시기에 설립된다. <표1>

1960년대는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등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시기를 거친다. 이에 장애인단체 중 일부는 폐회되기도 하고 재설립되는 등의 격변의 시기를 보낸다. 이어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이 본격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화되면서 장애인단체의 활동도 보다 확장되어 간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는 198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농아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역시 정부로부터 법인 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창립대회.

립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같은 전국 조직이 등장하는 본격적인 장애인당사자단체 시대를 맞이한다.

## — 장애인에 대한 민중인식의 변화

1960년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불구자'라는 단어로 검색되는 뉴스는 54건, 장애자는 2건이 검색된다. 이 중에는 장애를 비관한 자살, 장애를 이유로 청혼을 거부해 벌어진 살인사건, 간질장애인이 7살 소년을 살해한 사건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1960년대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고 때로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혜적인 시선도

매우 높는데 22세의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도 항후의 삶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사가 게재됐다. 사례를 보면 1962년 5월 중부소방서 망루대가 무너지면서 18세의 젊은이가 사망한다. 이어 어머니가 충격으로 연이어 사망하는데, 문제는 22세의 척추추만장애인과 15세 청소년이 남겨져 앞으로의 삶이 매우 우려된다는 내용의 뉴스였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1960년대까지도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1970년에는 '불구자' 검색어로는 59건, '장애자' 검색어로는 34건의 뉴스들이 검색된다. 뉴스 내용면에서 1960년과는 달리 냉소적인 뉴스보다는 정책적인 대안 제시, 장애인캠프, 장애인 체육대회, 미담사례 등이 게재됐다. 이처럼 60년대에서 70년대로 들어서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

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민중 전체에게 전달되고 언론에서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례로 1979년 11월 10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보건사회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심신장애자 조사를 실시했으나 대상가구에서 조사에 응하기를 꺼려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사 기피 사유로는 가족 중에 심신장애자가 있는 것을 감추거나 아예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고 또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해 장애인에 대한 시대적인 인식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이슈들은 이처럼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또 국내 경제성장 및 교육인구 증가, 사회민주화에 대한 요구 등 사회적 변화와 장애계의 흐름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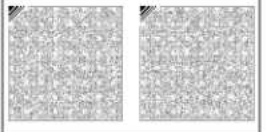
## — 국내 장애인운동의 시작 1980년대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가 설립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활동이 시작된다. 특히 1980년대는 장애인당사자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장애인복지사적으로도 큰 변화를 맞이한다. 변화 요인으로 1981년 UN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과 1970년대 UN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강조와 같은 외적 요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의 장애인운동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당사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다. 80년대 초반 다양한 동우회 및 소규모 장애인단체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장애인단체로는 윤서회, 지체장애자대학생연합회, 푸른하늘 가족모임 등의 단체와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한다. 당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욕구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뉴스들을 보면 교육에 대한 욕구 증가, 선거권 확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저항의 이슈들을 볼 수 있다. 윤서회를 운영했던 천병호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체육대회 등 전국규모 행사 또는 발행 잡지 등을 통해 장애인단체 및 동우회간 연계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후 정기 또는 비정기 모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 소리로 읽는 새보람



애인당사자 회원들의 대의적 관점에서의 참여와 성숙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기성 단체에서도 더욱 회원들에 대한 냉철한 욕구분석과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중앙 단위의 장애인단체 역시 장애인을 위한 단체는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취합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장애인당사자에게 제공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장애인당사자단체 역시 당사자주의에는 무한한 책임주의가 함께함을 언제나 자각하고 늘 전문적인 지식과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장애인복지 전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80년대 초반 지역장애인동우회 및 소규모단체의 활성화가 진행됐다.

## - 당사자운동의 시작

1990년대에는 본격적인 장애인당사자운동이 시작되는데 특히 이때 지장협은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로 단체의 성격을 구분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림 2>

지장협은 당사자운동의 활성화와 장애인당사자단체의 결집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장애인단체 간의 의견이 부합되지 않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출범하고 장애인을 위한 단체까지 회원단체로 규합하면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마련되고 또 지장협은 최대 장애인당사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장애인이동권 증진,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보조서비스 시행 등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한다. 특히 정치세력화와 관련 장애인당사자 의원의 참여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가시화됐다.

## - 장애인단체들의 향후 과제

2000년대 지장협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설립이 추진된다. 지장협은 보다 목적에 적합한 활동과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의 참여가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단체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

협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등과 같은 단체의 창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이는 장애인의 목소리가 각 정부부처의 활동에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시스템적인 이상향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단체의 또 다른 문제는 활성화가 지나쳐 난립의 상황까지 초래하는 것은 견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단체를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단체장의 정치적 상황에 의존해 활동하게 되는 경우 이후 장애인당사자에게 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장

장애인단체명(현재명)	창립 당시명	창립연도	설립허가	
1940년대	한국농아인협회	조선농아협회	1946.6.1.	1980.8.30.
1950년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상이군인회	1951.5.15.	1963.8.17.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불구자협회	1954.9.20.	1958.1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맹인복지협회	1957.4.1.	1981.5.1.
1960년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1962.3.30.	
	한국소아마비협회	삼애회	1965.10.	1977.6.
	한국지적발달장애인지원회	한국정신박약인애호협회	1968.7.4.	
1980년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뇌성마비아복지회	1978.3.24.	1978.10.16.
	한국신체장애인지복지회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	1981.10.1.	-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푸른하늘 가족모임	1982.8.	2003.4.
	한국DPI	한국DPI	1986.10.	1986.10.
	한국지체장애연합회	한국지체장애자협회	1986.12.27.	1989.7.1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87.12.	
	한국교통장애인협회		1990.1.	
1990년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국장애인종합복지관협의회	1990.12.	2000.5.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재활 동우회	1991.4.20.	1996.8.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996.9.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8.12.3.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1998.12.5.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999.4.17.	2000.10.5.
2000년대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2002.12.24.	
	내일을여는멋진여성		2004.7.2.	2005.9.6.

▲〈표1〉 주요 장애인단체 창립시기.



▲〈그림 1〉



▲〈그림 2〉



▲1979년 11월 10일 동아일보 심신장애자조자 난향 보도 기사(사진출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80년대 초반에는 전국의 작은 장애인단체들이 만들어지고 80년대 중반 이후 정식 단체로 발전하거나 통합되는 형태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지체장애연합회의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80년대 초반 장애인당사자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단체들이 연합하면서 1986년 창립에 이르렀다.

## - 한국지체장애연합회의 창립과 전국 장애인당사자의 결집

한국지체장애연합회의 창립은 한국 장애인복지사에서 장애인당사자 전국 조직의 등장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이는 작은 규모로 활동하던 장애인단체들이 전국 규모로 결집하였다는 것 외에도 장애인당사자 네트워크의 체계화와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주었다는 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당시 총복합회장을 역임한 김종진 협회장에 의하면 "지회장 중 일부는 사실 한자뿐만 아니라 한글 역시 읽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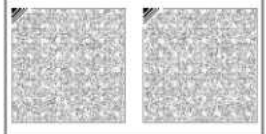
이처럼 장애인단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됐고 또 체계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난점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지체장애연합회는 공문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무역량 강화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수많은 지역 장애인단체들을 양산하는 모태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단체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한국장애인교통안전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등의 경우에도 지장협에서 회장을 역임했던 대표들이 단체를 창립하게 된다. <그림 1>



## SENDEX 2016 11월 3~5일 개최

KINTEX, 250개사 700개 부스 규모 예상

소리로 읽는 새보람



▲SENDEX 2015를 찾은 관람객들.

시니어 리빙 박람회·복지&헬스케어 박람회·중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SENDEX 2016)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 2, 3홀에서 열린다.

KINTEX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한국복지용구판매협회, 50플러스코리아, 한국실버산업협회,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250개사 700부스에 3만 5천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전시회 외에 유통·구매 상담

회, 산업·정책 세미나,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대한노인회 축제 등의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전시 품목은 △생애설계: 금융·재무 설계, 맞춤형 노후 설계, 금융상품 △리빙&라이프스타일: 리빙용품, 여행, 취미·여가 △건강&뷰티: 건강식품, 건강보조 / 기능식품, 뷰티용품 △헬스케어&재활: 건강보조기구, 운동처방, 재활기기,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보조공학&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보행보

조기구, 복지용품, 특수교육 교구 등이다.

KINTEX 관계자는 "SENDEX는 우리나라 최대의 복지종합 전시회"라며 "이번 전시회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시회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도 다양하게 개최해 참여업체 및 관람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문의 KINTEX SENDEX 사무국 : 031-995-804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보조공학기기 협력사 간담회 개최

지원 대상·기기개발사업 확대 방안 등 논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8월 11일 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협력사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2개 사업체가 참여해 보조공학기기 산업의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과 품목 확대, 기기개발사업의 확대 필요성 등을



▲박관식 고용혁신이사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협력사업체 간담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논의했다.

또한 오는 11월 중순 열릴 '2016년 대한민국 보조공학기

기 박람회'를 통해 각 사의 대표 제품과 신제품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 강사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청렴한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해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공단 이석화 근로지원부장은 "공단은 '정부 3.0'의 취지에 맞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한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서울시립북부장애인지원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의 삶과 희망을 생산합니다.

위생관리용역업(건물청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깨끗함을!!

전직문의 (전화상담) 방문상담 후 견적 (현장조사) 계약체결 청소서비스지명 (현장투입) 깨끗한환경 지속관리

보유장비(위생관리용역업 관련 기본장비 만백구비)



바닥광택기



개단청소기



전공청소기



바닥세척기

임가공!!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량 ZERO. 불만 ZERO.

청소사업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방역사업  
안전한 환경을  
차려드립니다.



임가공사업  
순거운 일자를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직업적응훈련  
신나는 능력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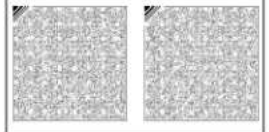
문의: 02-2092-1791~5

주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6.7동 771번지

홈페이지: <http://www.workvision.or.kr>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6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리날레 포스터.

직위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한다.

#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리날레’ 개최

9월 23~26일 대학로 이음센터 · 마로니에공원에서

장애예술인들의 거리축제...문화교류 통해 비장애인과 ‘소통·화합’

2016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리날레’가 9월 23~26일 4일간 대학로 이음센터와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문화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린다.

리날레는 영어로 다시라는 표현의 ‘Re’와 함께 날아보자는 의미의 순수 우리말 ‘날레’를 합한 말이다.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다시 날아오르자는 뜻을 담았다.

리날레 조직위원회 출범식은 지난 8월 5일 동송동 이음센터에서 열렸다. 출범식에서는 개식선언을 한 후 조직위원회의 명예대회장, 대회장, 후원회장, 조직위원장과 홍보대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리날레 방귀회 대회장, 리날레 홍이석 조직위원장, 한

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신종호 이사장, 박시연 아나운서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출범식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신종호 이사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장애예술인 축제가 될 이번 행사는 장애인만을 위한 축제를 넘어 비장애인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리날레 홍이석 조직위원장

은 “리날레를 누구나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거리 축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밖에 축하공연은 한빛예술단 이아름 학생이 나서 청아한 목소리로 장애예술인의 희망을 전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2016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



▲완성된 벽화를 축하하며 포즈를 취하는 삼성카드 임직원 봉사단.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 벽 한편에 시원한 바닷속 세상이 그려졌다.

삼성카드(대표이사 원기찬)

임직원 15명은 지난 7월 북부장복을 찾아 식당 외벽에 벽화를 그리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삭막한 벽면을 밝은 색상으로 색칠한 후, 바닷가

## “북부장복에 펼쳐진 바닷속 세상”

삼성카드 임직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펼쳐

재능기부 통해 장애인시설 환경개선 등 사회공헌 활동

에서 자유를 누리는 물고기를 그려 넣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향상시킨 것이다.

채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려 흘리면 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열심히 벽화를 완성했다.

복지관 이용인 권 모 씨(지체 1급)는 “아름다운 벽화로 식당이 화사해져 밥맛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2005년부터 서울시립

북부장장애인복지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작된 삼성카드임직원 봉사활동은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리우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전 다짐

11개 종목 139명 파견, 금메달 10개 목표

대회 앞서 최초로 미국 애틀랜타에서 전지훈련 실시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2016 리우패럴림픽대회 참가를 위해 8월 23일 인천공항에서 환송 행사 후 전지훈련 장소인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했다.

리우패럴림픽 참가 대표선수단은 총 139명(선수 81명, 임원 58명)으로, 이중 수영과 양궁, 유도, 육상, 조정, 탁구, 테니스 등 7개 종목 80명의 선발대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전지훈련을 치렀다.

장애인대표팀이 패럴림픽을 앞두고 전지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까지 거리가 멀어 시차 적응 문제로 선수들의 기량 발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경유지인 애틀랜타에서 적응 훈련을 마쳤다.

정재준 선수단장은 “각계의 도움으로 전지훈련을 하는 만큼, 좋은 대회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며 “장애인 선수들이 패럴림픽대회를 통해 국민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우패럴림픽은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개최되며, 개막식은 현지 시각 9월 7



▲리우패럴림픽 대한민국선수단 환송식. ©대한장애인체육회

저녁 6시 15분에 마라카나경기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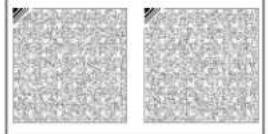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월 29일 훈련을 개시해 160여 일간 체계적으로 훈련해왔다. 특히 스포츠과학 프로그램 지원 및 선수 부상 방지 및 컨디션조절 등의 의무지원 강화를 통한 과학적 훈련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경기력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브라질 리우 현지에서의 범죄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 및 예방접종을 하는 등 대회 참가에도 만전을 기해왔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순위 12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기술 활용

## 척수손상 하반신 마비 장애인 일부 감각 회복 대상자 8명 모두 근육 기능 향상 등 호전

미국과 브라질의 공동 연구진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MI·Brain Machine Interface) 기술을 활용해 척수마비 장애인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 듀크대 신경공학센터 미구엘 니콜레리우스 소장과 브라질 신경재활연구소 공동 연구진은 가상현실(VR)과 외골격 로봇을 뇌와 연결하는 BMI 기술을 이용한 재활요법이 척수손상에 따른 하지마비장애인의 일부 감각과 근육 조절 기능을 회복시켰다고 8월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척수손상으로 하반



▲하지마비장애인이 가상현실 속 아바타를 이용해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 ©theguardian

신이 마비된 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BMI 기술을 이용한 재활치료를 진행했다. 이들은 마비된 지 3~13년이 지난 장애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척수손상 후 18개월이 지난 때까지 재활운동을 하

라도 운동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다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일주일일 최소 두 시간씩, 1년 동안 BMI 훈련을 시행했다. 대상자들은 먼저 머리에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모자를 썼다. 그 뒤 VR장비를 이용해 가상 공간의 아바타를 움직이기 위해 집중할 때 머리에서 나오는 뇌파를 측정했다. 이 뇌파의 신호는 컴퓨터를 거쳐 바로 외골격 로봇으로 이동하며 신체에 자극을 줬다.

이번 실험을 통해 8명 모두 마

비된 일부 감각과 근육 기능을 회복했다. 장애인들은 조금씩 무릎을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앞으로 걷는 형태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특히 4명은 감각 기능과 운동 능력을 일부 회복해 완전마비에서 부분마비로 진단받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다. 일부는 편이나 빗을 다리에 접촉했을 때 촉감을 느끼기도 했고, 내장 기능도 호전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예상치 못했던 좋은 결과라며 완전마비 진단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기능을 회복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니콜레리우스 소장은 "완전마비 장애인 중 상당수가 아직 손상되지 않은 척수신경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며 전 세계에서 이 재활훈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일과 기구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 손발 없는 산악인 마테호른 등정 성공

### 산악인 제이미 앤드류 · 4중 장애인으로 세계 최초

두 손과 두 발이 없는 4중 장애를 가진 산악인이 세계 최초로 스위스 마테호른 등정에 성공했다.

영국 가디언은 17년 전 프랑스에서 등반 중 등상에 걸려 손발을 절단해야 했던 산악인 제이미 앤드류(47)가 8월 4일 해발 4478m에 달하는 마테호른 정상에 발을 디뎠다고 보도했다. 또 공식 기록은 없으나 현지 산악계에 따르면 4중 장애인이 마테호른 정상 등반에 성

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앤드류는 지난 5년간 마테호른에 오르기 위해 꾸준히 훈련을 했다. 그는 손발을 잃은 후 걷는 법부터 다시 연습해야 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 끝에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뿐 아니라 스키를 타고, 장거리 달리기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에 걸쳐 열정을 바쳐온 등반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앤드류는 지난 4월 마테호른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지 약 13시간 후 정상에 도착했다. 대다수 등반가들이 정상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5시간이 더 걸렸다.

현지 산악계는 앤드류의 정상등반을 축하하는 한편, 마테호른 등정은 앤드류처럼 숙련된 산악인이 도전해야 하는 코스라고 강조했다. 등반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앤드류와 같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악인 제이미 앤드류가 스위스 마테호른을 오르고 있다. ©Guardian



▲헤드셋 형태의 기기인 호루스를 귀쪽에 착용한 시각장애인. ©Horus Technology

## 시각장애인 위한 제3의 눈 ‘호루스’

### 장애물 감지 웨어러블기기 개발

#### “사물과 사람 분간...글자도 읽을 수 있어”

최근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게 돕는 웨어러블기기가 등장했다. 이른바 ‘제3의 눈’으로 기대감을 모으

는 기기 ‘호루스(Horus)’는 헤드셋처럼 귀에 걸고, 소형 휴대용 배터리 크기의 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간편한 기기다. 호루스의 본체는 사각형 박스

안에 배터리와 그래픽처리프로세서(GPU)가 내장됐다. 이 기기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뒤 주위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헤드셋을 연결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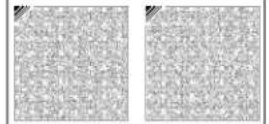
헤드셋에 탑재된 카메라 2개는 주위 환경을 살핀 뒤 GPU로 정보를 보낸다.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시각 정보가 음성메시지로 바뀌어 시

각장애인에게 전달된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그림이나 장면이 보이는지 전달한다. 사람과 사람을 분간하며, 글자도 읽을 수 있다.

나델리는 “지금은 최초 버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기기는 내년 봄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시하고, 영국 등 영어권 국가부터 판매한다. 기기 가격은 1~2천유로(약 128~256만 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숙박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박경준 대리



▲점자블록 재질 부적절.



▲접수대 허부 공간 미확보.



▲객실 내 화장실 부적절.

## 관광숙박 편의시설 현황 파악 부족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매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국의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을 관광숙박시설로 선정할 이유는 최근 장애인의 문화향유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지뿐만 아니라 인근 숙박시설의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광숙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권과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조사

를 계획하였다.

## 적정설치율 60%에 머물러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에서 실시했다. 각 지역 센터 직원 300여 명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했다.

아래 <표1>을 기준으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현황 파악을 위해 권장사항까지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2016년 2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전체 1,293개 대상시설 중 1,129개 시설 조사를 완료하였다(조사완료율 87.3%). 참고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164개 시설의 불가사유는 폐업, 공사 중, 타업종으로 용도변경 등이 있었으며, 일부는 조사를 거부했다.

<표2>는 이번 실태조사와 2013년 전수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비록 대상시설 선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2013년 전수조사는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 중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만을 선정) 이번 조사결과와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한 지표로 판단하여 결과 값을 추가하였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기타시설을 제외하면 2013년도 결과보다 상승하였으나 전체 설치율에서는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기타시설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을 의미하는데, 이 항목이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는 것은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이 없거나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설 이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에서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건축물의 일부가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4.11.) 이전에 준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준공된 건축물일지라도 준공검사 시 편의시설 설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준공 당시에는 제대로 설치했더라도 사후 유지·관리가 부족한 경우가 포함되어 (적정)설치율이 100%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 사료된다.

## 부적정 시설 시정명령 예정

조사 결과, 소규모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도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다수 있었다. 일부 시설은 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곳도 있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지은 숙박시설은 기존시설에 비해 비교적 편의시설을 잘 설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정한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를 통해 후속조치(시정명령)를 할 예정이다. 편의증진법 제23조(시정명령)에 따라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28조(이행강제금)에 의해 시설주에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조치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 및 관련 단체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설주는 편의시설 설치에 규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길 기대해본다.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높이차 제거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객실·침실	접수대·작업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난방 시설	관람석·열람석	입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12

▲ <표1> 관광숙박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종류	실태조사 결과 <관광숙박시설 1,129개소>		(참고) 2013년 전수조사 결과 <숙박시설 573개소>	
	설치율(%)	적정설치율(%)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83.51%	73.74%	75.75%	69.48%
내부시설	86.58%	81.00%	83.16%	75.34%
위생시설	61.71%	53.36%	56.24%	47.68%
안내시설	51.75%	47.31%	25.73%	23.39%
기타시설	54.23%	46.08%	79.04%	63.45%
계	68.39%	60.98%	71.5%	62.5%

▲ <표2> 2013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와 비교한 실태조사 결과표  
(※ 2013년 전수조사 결과의 숙박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만을 포함)



# 장애인 포함 최저임금법 개정 발의

##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 제외, 한국 등 3개국 불과

장애인에겐 최저임금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8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애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 한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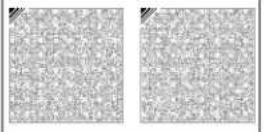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로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를 전면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과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케이프라이드, 장애인표준사업장 추진

###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포부

종합식품회사인 ㈜케이프라이드(대표이사 서훈)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공단과 케이프라이드는 8월 17일 케이프라이드 회의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케이프라이드는 최첨단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축산물 가공하고 떡갈비, 소시지 등을 생산하며 15년간 대형마트에 납품해 온 강원도 최대 육가공업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케이프라이

드는 올 하반기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완제품 포장 등의 직무를 개발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사업사는 "최첨단 시설을 기반으로 최고의 상품을 고객에

게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육가공업체로 성장해 온 케이프라이드가 장애인고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케이프라이드 서훈 대표이사도 "평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삼성, LG,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등 2016년 6월말 기준 46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2,027명(중증 1,328명)에 이른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퀴즈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에게 시상하는 ○○○○○○의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이 상은 장애인 복지 발전에 헌신한故 상공 장기철 지장협 초대 회장의 이상과 신념을 전하며 장애인 인권과 사회변혁을 위해 매진해 온 장애인 인권분야 공로자의 공훈을 알리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이 상의 이름은?
2. 2016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짜는?
3.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 독자의견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되었으나 아직 익숙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 온라인 정보화교육 '배움나라'가 운영되고 있다니 매우 기쁩니다. 자주 들려 사용하겠습니다. - 장승길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역사와 미래 기사를 통해 장애인 운동을 돌아보고, 가야할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 김명원

### 용모요령

용모요령 : 우편서신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주소와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호 정답

인권  
인식개선

### 당첨자

광주 북구 장승길  
서울 동작구 김명원  
강원 춘천시 박재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작업장  
가브리엘 작업장



"천연비누세트, 답례품, OEM"

필요한 제품 주문해 주세요.  
소중한 사업에게 하는 선물·행사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틀하시는 문구/이미지 예쁘게 넣어 드립니다.  
밑고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기관은 장애인성상물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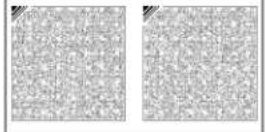
가브리엘천연비누 1구 가브리엘천연비누 3구 가브리엘천연비누 4구 비누세트(주방용)

♡문의♡

Tel. 02-951-9707 Fax. 02-951-9708  
서울시 노원구 한남대교로 24라길 04-13  
http://www.gabrielcenter.or.kr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장애인 복지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지난 7월 『장애등급별 장애인 복지혜택』 책자를 발간했다.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정리한 이 책의 내용을 연재한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 ◆ 교통편의 및 할인 서비스

구분	세부 내용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 전액 무상
철도	■ 1~3급 : 50% 할인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 할인 (KTX, 새마을호 - 법정 공휴일 제외한 주중)
국내선 항공	■ 50% 할인 (1~3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 (1~4급 50%, 5~6급 30%)
연안 여객선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50% 할인 ■ 4~6급 : 20% 할인
고속도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 직접 탑승시만 혜택 가능,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주차증)	■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라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발급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주차증)	구분
	세부 장애유형 및 등급
	하차절단/뇌변환장애
	하차절단/하지기능/시각장애
	척추장애
	변환장애
	평행기능장애
	신장/장루요루장애
	심장/간/호흡기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정신장애
	자폐성장애
	1~4급
	1~5급
	2~5급
	5급
	3~5급
	2급
	1~2급
	1급
	1~2급
■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라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으로 발급	
공공 주차요금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및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대부분 50% 할인)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 명의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할인 - 1~3급 장애인 : 50%, 4~6급 장애인 : 30%

## ◆ 공공요금 할인

구분	세부 내용
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의무면제
고궁, 국립립 박물관 및 공원	■ 입장 요금 무료 ■ 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립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 50% 할인 ■ 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활동지원 서비스 (1~3급)

구분	세부 내용
대상	■ 만 6세~만 64세의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방문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급여내용	■ 활동보조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 방문간호, 방문 목욕, 긴급활동지원
월간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43~106,3만원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위급 및 취약 여부 등 생활 환경에 따라 추가 급여 제공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 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 직업 및 자립 지원

구분	세부내용
장애인고용서비스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의무고용사업장(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대상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취업확대 및 소득 보장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만 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 부모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 이자 : 3% (고정금리)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 장애인의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적 또는 정신 3급 이상의 뇌변환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장애인거주시설	■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제공 - 무료 : 기초생활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장애인 - 실비이용 : 등록장애인/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지정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최대 입소료 648천원 중 매월 286천원 지원

## ◆ 세제 혜택

구분	세부 내용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제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차량 (도지역 해당)
연말정산	소득세 공제
	의료비 공제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인 등록 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 가액(증조의 상속세 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 연 수) 공제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최고 5억원 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품 관세 감면	■ 장애인용 물품으로 발표에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 실용 신안원 또는 의창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구분	세부 내용
주간 보호시설	■ 재가 장애인 낮 동안 보호
치과유니트 지원	■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치과 유니트 설치 지원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 및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재가복지 봉사센터	■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 - 재가 장애인의 방문, 상담, 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 서비스
장애인 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서울 및 물 운행 병행)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 장애인과 가족 지원 - 정보 격차 해소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 대회) - 인권, 교육 지원사업, 생활문화 지원사업,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기와 지역사회 지원 - 전문가와 중사자 교육 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 지원사업 (장애 인식 개선 등)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 단체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 조사 지원, 의견제시 등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수리, 의료재활 상담 등
무료 법률 구조제도	■ 법률 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 지원

## ◆ 건강보험

구분	세부내용
자동차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산정시 연령, 성별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소득 360만원 이하 및 과표 재산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1~2급 장애 : 30% 감면 - 3~4급 장애 : 20% 감면 - 5~6급 장애 : 10% 감면
산출보험료 감감	■ 1~2급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
장애평가보험료 감감	■ 1~2급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
보장구 의료급여 적용	■ 적용대상 품목 기준에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 부담(의료급여수급권자는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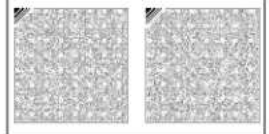
## ◆ 세금 감면 (1~3급)

구분	세부내용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 대상차량 : 배기가스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승용자동차 특별 개별 소비세 면제	■ 새로 구매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전기요금	■ 전기 요금 장려 금액(월 8천원 한도)
도시가스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 가스 할인

## ◆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사업 수행 기관 운영 지원

•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응 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 제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송인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 일자리

## ‘통계조사원’을 소개합니다

### 여성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필요

2014년 장애인고용 통계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9%로 남성장애인 5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성장애인은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희망하지만, 진출 가능 분야 및 직종이 부족하고, 대다수 남성위주의 작업환경으로 취업이 쉽지 않다.

이러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장애인의 사회진출과 고용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여성장애인 유망 직종을 탐색하였고, 그 결과 통계 및 설문 조사원이 선정되었다.

### ‘통계조사원’이란?

통계조사원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계획, 자료 수집, 통계 분석

을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는 사람이다. 이번 직업영역개발에서는 ‘온라인 슈퍼바이저’와 ‘전화조사원’을 선정해 통계조사원으로 정의했다.

### 1) 온라인 슈퍼바이저

온라인 슈퍼바이저란 설문조사원을 모집 관리하고 교육하는 등의 기존 슈퍼바이저와 달리 온라인상으로 패널의 현재 상태를 파악/관리하여 조사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으로 패널 및 설문 조사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주로 통계 분야를 대학에서 전공했거나, 통계프로그램 사용 경력이 있는 고학력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하다. 이동의 폭이 넓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기존 조사 대상자를 파악, 관리하

고 적합 대상자 선정 및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일 8시간씩 온라인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 숙지 후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이 확대·강화되고 있어 직업전망이 밝다.

### 2) 전화조사원

전화조사원이란 고객이 제공한 리스트 또는 패널 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설문 응답을 독려하는 업무 또는 전화로 설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 수준을 하향한 전화조사원을 2차로 선정해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높이고 학력은 낮춰 참여를 확대하였다.

근로조건은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고, 언어장애가 없다면 경력 단절 여성장애인에게도 적합하다. 3주 정도 교육 후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1일 8시간씩 근무한다.

직업전망은 통계리서치 분야의 산업 증대로 고객에게 설문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직무이기에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한국리서치와 협력 체계 구축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업계 1위인 마케팅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의 협력으로 온라인 슈퍼바이저와 전화조사원 부문의 여성장애인 채용을 진행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추천 받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진행했다.

통계리서치 분야의 성공적인 취업 사례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나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장애인 당사자의 지원포기 등으로 인력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향후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통계리서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여성장애인 구직자의 역량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통계리서치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위에서 한국리서치와 협력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향후 통계리서치 분야에 여성장애인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 곳의 사례 발굴로는 한계가 있다. 동종 분야의 대다수 사업체에서 여성장애인 인력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과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여성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직무명	온라인 슈퍼바이저
직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패널의 현황을 수시로 확인 변동사항 정리</li> <li>프로그램을 통해 패널 관리</li> <li>온라인 조사원에게 정보 제공</li> <li>작성된 온라인 설문지를 선별 대상에게 메일로 발송하고 실시 진행</li> </ul>
요구 성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감, 꼼꼼함, 신속함, 패널 정보 파악능력, 문제 상황 발생 시 유연한 대처</li> </ul>
필요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조작 능력/ 프로그램 설계 능력</li> <li>데이터베이스 구조 이해/ 오류데이터 파악 능력</li> <li>정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설문이해 능력</li> </ul>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제 대학졸업 이상</li> <li>통계관련 학과 졸업</li> </ul>

▲온라인 슈퍼바이저 직무개요서

직무명	전화조사원
직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이 제공한 리스트 또는 패널 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설문 응답을 독려하는 업무 또는 설문을 받는 업무</li> </ul>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li> <li>의사소통 가능자/ 작은 글씨 해독 가능</li> <li>35~45세 사이의 여성/ 설문 이해 능력</li> </ul>

▲전화조사원 업무 개요서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내일을 여는 JOB, 함께 나누는 꿈 (2015년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 2015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78호 2016년 9월 2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염민호 기자/오창세, 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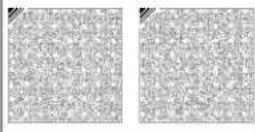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77호  
20면 장애사랑



2014년 5월부터 사용되는 KS접근성 표지





2016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자립상 수기

## 프로 접사(接寫) 사진작가가 된 내 남편

— 박명숙 · 김현용 부부

### 패랭이꽃을 건넨 남자

제 나이 18살 때 약한 몸에 다리에 장애까지 있는데 결핵이라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산MRC 주한아동결핵진료소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점심을 먹고 병원 뜰로 향했습니다. 트락 한 끝에 자릿자릿 햇빛이 닿는 곳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제 곁으로 휠체어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휠체어를 보았더니 한 남자가 저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주는 겁니다. 패랭이꽃. 잡초지요. 남자는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병원 정원에서 한 포기 뜯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몸은 1급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사과 같은 볼을 가졌더군요. 볼에서 건 강한 향기가 가득 넘쳐났습니다. 저는 남자가 건넨 패랭이꽃을 무심결에 받았습시다. 햇살이 패랭이꽃 등에 살포시 내려앉아 나폴나폴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료함도 달랠 겸 매일 점심 후, 이 남자를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통영바닷가에 태어나서 그런지 바다와 관련된 상식이 풍부했습니다. 어떨 땐 제 환심을 살 요량으로 대중가요 ‘바다새’를 휘파람으로 불었습니다.

그는 갓난아기 때 실수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으며, 학교도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꾸밈없는 그의 행동과 마음이 저를 설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빠져들었고,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년해로를 맺었습니다. 제 나이 21세 때였습니다. 신혼살림은 통영의 5만 원짜리 월세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 나는 내조의 여왕

통영이 고향인 남편은 어릴 때부터 사진 찍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도 비싼 사진기를 구했으며, 늘 사진기를 지녔습니다. 남편은 접사(接寫)사진을 찍습니다. 접사는 근접촬영으로 사물의

미세한 부분까지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작가의 인내와 끈기, 예술적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열정까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통영바다를 촬영하러 나가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은 모든 고생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그밖에도 사찰, 평야, 야생화 등을 촬영하러 함께 다녔습니다.

상대성이론을 발견한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아내 밀레바 마리치를 만나기 전에 매우 우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취리히대학을 겨우 졸업한 그는 고등학교 임시 수학교사를 전전하다 얻은 직업이 겨우 특허청 심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수학과 물리학에 자신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인 밀레바를 만나 그녀의 도움을 받아 놀라운 학문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밀레바와 결혼한 지 3년째 광전효과와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하는 등 천재 과학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성과는 아내 밀레바 마리치의 지극한 사랑과 지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에 비하기는 어렵겠지만 남편이 사진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마치 아인슈타인의 아내 밀레바 마리치가 된 듯 기분이 업(Up)됩니다.

### 프로 사진작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은 지난봄 ‘빛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접사로 대자연의 장엄하고 세밀한 풍경을 담았습니다. 미나리밭으로 들어가는 여인네들의 모습, 직박구리, 바다 갈매기의 비상, 통영 미래사의 일주문, 개미들의 나들이 등입니다.

전시회를 후원한 조성재 원광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김현용 작가는 어려운 몸으로 대자연의 순간을 포착해 왔습니다. 그의 인간승리에 감동했습니다. 작가의 뛰어난 통찰력과 예리한 감각에도 찬사를 보냅니다”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날 전시회장을 찾은 모 국회의원

은 한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뿔 위에 바다새 두 마리가 서 있는 사진 제목은 ‘모자(母子)’.

이 의원은 “저런 사진을 찍으려면 뭇단배나 고기잡이배를 이용해야겠군요? 엄마새가 검푸른 바다 위에 서 있는 아기새를 보호하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인사말을 통해 “내 마음의 눈으로 본 통영다움을 그렸습니다. 스님들이 용맹정진 수행하듯이 저도 통영의 대자연을 담으려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편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고 싶었다”며 “제 사진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박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김현용 작가는 지난 1993년 한길 사진 동우회를 창립하고 제1대·2대·4대·5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통영포토클럽에서 2010년 부회장·2011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한국사진작가협회 입선, 유엔 가입 및

군민의 날 기념 통영의 비경 은상, 전국장애인예술대회 사진 부문 최우수상, 서천 전국사진공모전 동상, 동아일보 공모전 입선, 대한민국 누드사진전람회 특선 등 다양한 경력을 고르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수의 개인전과 통영 노인복지관 사진반 강사, 통영 여성장애인연대 기자회견 사진반 강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외사진 강의를 하며 전문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 폐셔널한 우리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남편이 용맹정진 수행하듯이 사진을 찍는다고 한 말을 떠올리며, 단순히 남편을 아끼는 것을 넘어 저도 용맹정진 수행하듯이 평생 남편을 사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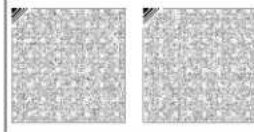




## 리더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 김경철 협회장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새로운 도전



2016년 8월, 벌써 올 한해의 절반이 훌쩍 지났다.

새해 첫 날 다짐했던 계획들이 아직 초반부도 향해 가지 않았는데 세월은 참 알갭게도 빠르게 지나간다.

올 한해는 나에게 조금은 특별한 해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나였지만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기억이 가물

물하다.

이러한 내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 국내 최대의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대표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회, 내가 대표직을 맡은 단체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쪼개 틈나는대로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였지만, 정식으로 협회를 맡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대표가 되면서 할 일은 10배 이상 많아졌으며, 책임자로서의 결단력, 통솔력, 추진력 등이 프로그램의 퀄리티에 얼마나 많은 일조를 하는지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 이 협회의 대표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장애를 모르며 살아왔던 내가 세종시가 고향이며, 세종시에 직장도 일터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세종시의 장애인들을 위해 땀과 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점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실행에 옮기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세종시의 특성상 세종지장협의 회원 평균연령이 60대다. 현재는 신도시에 젊은 연령대의 지체장애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타 시·도 협회의 회원에 비해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다.

우리 회원들의 특성에 맞춰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까, 우리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 등을 고민하면서 새롭게 땀을 만들어가야 할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

그러나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주저 없이 실행에 옮기는 성격의 나로서는 이러한 이유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역량을 갖춘 회원들과 함께 무언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세종협회장 업무를 맡은 지 3개월, 협회장으로서 업무 파악이 100% 완벽하게 되진 못했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재미도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긴장되며 기대되며 두려움마저 들겠지만 항상 새로운 도전은 희망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내가 품은 이 희망을 우리 세종시 지체장애인, 우리 장애인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해주고 싶고, 의무감도 갖게 하여 서로 발전하며 서로 동반성장해 나가는 희망을 그려본다.

무엇인가 작은 일에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맡은 이 직분을 감사히 생각하며, 나의 고향, 나의 삶의 터전인 이곳 세종시에서 많은 장애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 장애계인사이드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정우선 관장



사람은 누구나 고귀하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족의 애정과 주위의 축하 속에 태어나 자라게 된다. 물론 태어날 당시 가정환경이 좋은 경우도 있고, 넉넉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자랄 때 금이야, 옥이야 귀한 대접을 받으니 모두가 다 귀하다고 하겠다.

우리 장애인들도 모두 다 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세상살이가 여의치 못해 배움이 쉽지 않았고 살아온 시간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힘없이 기죽어 살

요는 없다. 모르는 것은 배우고 노력하여 선의의 경쟁에서 저지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사를 긍정적 생각으로 접근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공이란 경제적 성공, 높은 자리의 성공이 있겠지만, 양자 어느 것이든 올바른 가치관이 담보되어야 성공이라는 가치가 빛을 발한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공익적 가치를 수반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비치는 인식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주위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성공할 수도 없겠지만, 설령 성공하더라도 그 가치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겸손(謙遜)과 성실(誠實)이 성공의 조건일지도 모른다. 어디서나 살 속에서 남보다 부지런히 행동하고 늘 낮은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주위의 시선은 집중될 것이다. 눈치만 살피고 기회만 찾고 약

## 가치 있는 삶

자를 무시하고 강자 앞에서는 앞드러 일어나지 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소신과 결단으로 바른 일과 대중을 위하는 일이라면 앞서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집이 중요하다. 나 혼자만이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양보하는 사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지장협의 리더들이 회원들의 본보기가 되어 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보편타당한 일처리를 하여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 지장협이 빠르게 성장하고 아울러 개인도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성현의 말씀 중에 봉생마중(逢生麻中)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대마가 자라는 가운데 속이 자라면서 같이 자라서 속대도 대마처럼 키가 크게 자란다는 뜻이다. 속대가 홀로 자라면서 크게 자랄 수 없지만 키가 큰 대마 가운데서 자라니 같이 살려고 크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장애인 단체도 주위의 배려와 지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땀과 우리의 일은 우리가 제일 잘해나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우리 지장협은 이제 청년이 되어 30년이라는 짧은 역사의 역사를 세워왔다.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진실로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좀 더 주면 되는 것을  
내가 좀 더 손해보면 되는 것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을  
내가 좀 더 기다리면 되는 것을  
내가 좀 더 움직이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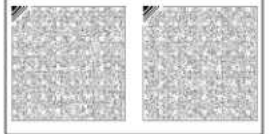
우리 모두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옆을 살피고 뒤도 한번 돌아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찰(省察)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복지마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 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성 확인제도



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성 확인제도(이하 기준적합성 확인제도)는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실시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담보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현하게 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제도다.

즉, 기준적합성 확인제도는 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내용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기준적합성 확인 절차는 크게 2개 과정을 거친다. 먼저 설계도면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에 직접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두는 것은 건물 완공 후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재시공 등이 발생하는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컸기 때문이었다. 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건축 관계자의 반

발과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기획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단계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도면이 변경되거나 임의 시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사로의 경사도가 구간마다 다르거나 시공돼 기준 이상의 가파른 구간이 발생할 수 있고, 손잡이가 거꾸로 시공되는 등의 실수가 있기도 하다. 이럴 경우 건축물 사용 전에 잘못된 시공을 바로잡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에 근거하며, 동법 제9조의3에서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는 대행기관을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우리 협회 편의센터는 올해 3월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이전에도 기술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왔고,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적합성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활발히 확인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준적합성 확인제도가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그 개념과 수행기관, 주요 업무, 종류와 대상시설 그리고 관련 기관의 행정 협조사항 등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

먼저 「기준적합성」이라는 말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의 준말로 시설주 등이 대상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변경(용도 변경 포함)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대상시설을 장애인 등이 항상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설계와 시공)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영문으로는 Criterion Suitability(CS)로 표기한다.

또한 「기준적합성 확인」은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도면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는(verify)하는 절차를 말한다. 영문표기는 Criterion Suitability Verification(CSV)이라고 한다.

기준적합성 확인제도 운영은 시설주관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체제와 전문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돼 있다.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주관 기관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로서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등 지

자체별 명칭이 다를 수 있음)인 주관부서에서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전문기관인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전국조직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적합성 및 전문 인력 등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협회 편의센터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허가 등 민원 직접 처리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와 및 교육청 등 담당 부서는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에 기준적합성 확인 여부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준적합성 확인기관의 주요 업무는 허가 등 확인업무와 사용승인 등 확인업무, 확인업무 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이의신청 처리,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에 의한 적용의 완화승인 업무,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몽과 교육 등이 있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종류는 크게 허가 확인과 사용승인 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의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의한다. 그 대상시설 중 BF 인증을 신청한 시설 또는 BF 인증을 받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은 인허가 의제시설로 분류돼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는 본 업무 활성화를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또 기준적합성 확인업무와 그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대한 이중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설주 등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전점검조례와 같은 제도 정비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해외 사례나 해외 선진 제도를 도입해 왔기 때문에 선도적 제도가 결실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제도 시행까지 보건복지부와 국회, 장애인단체가 협의와 동의의 과정을 이끌어 낸 데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정이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성숙한 제도마련으로 이어질지 기대한다.

또한 향후 대행기관 업무를 진행할 지장협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고 싶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해외에 없는 제도를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모험일 수 있다. 이는 선진사례를 보고 적용해 온 그간의 패턴에 대안을 제시하는 시험대에도 같기 때문이다. 이에 유의할 사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 리베이트나 검은돈이 연루해서는 안 된다.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선진적 제도 마련도 어려우며, 장애인편의시설 확대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아울러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30년간의 역사는 장애인복지사적으로도 급격한 변화와 성장의 단계였다.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에서 선도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번 기준적합성 확인제도가 장애인복지사에서의 또 다른 변화를 겪는 첫 번째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선진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립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우리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2016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뭉치자! 일어서자! 나가자!**

**2016.10.7.(금) 10:30**

(개회식 11:00)

**대구스타디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주최 |  **사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주관 |  **사단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후원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대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의회**

## 상곡 인권상 후보자 공모



장애인 차별문제 해결, 장애인 인권저해요소 제거,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화 활동 등  
장애인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후보를 모집합니다.

### 포상내용

- 상곡 인권상 대상, 1명, 5백만원
- 상곡 인권상 최우수상, 2명, 2백만원
- 상곡 인권상 우수상, 3명, 1백만원

### 제출서류

- 1) 공적조서 1부
- 2) 공적 요약서 1부
- 3)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4) 공적확인서 1부
- 5) 이력서 1부
- 6) 공적증빙자료 : 공적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  
(제적증명, 활동사진, 동영상물, 신문스크랩, 연구실적물 등)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16.9.23.(금)
- 제출방법 : 원본 우편 제출 원칙
-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 담당연락처 : oh@kappd.or.kr (02-2289-4381)

### 포상수여

- 시상일 : 2016.11.11.(금) 예정
- 수여장소 및 방법 : 지체장애인의날 기념 행사 장소 및 시상식